

## 닭고기 업계,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



박희권 상무  
(주)하림

# 우리 몸에 맞는 육계 자조금 제도를 다시 만들어 보자

우리가 10년이상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시행을 고대했던 육계 의무 자조금이 대의원까지 선출하고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빠져있다.

이는 우리 육계산업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각각 상호 상충되는 업무에 대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 육계산업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이런 산적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산업은 생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호 신뢰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자조금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만 한다. 올해처럼 장기간 불황의 원인도 협회간, 업체간, 생산주체와 유통주체간의 상호 이해 부족에 기인된 부문도 크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성공적인 자조금 제도를 운영해 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선 '자조금'이란 '특정 이익집단이 그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스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목적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육계산물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액의 할당금을 부과, 공제하여 육계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용하는 기금이다.

이와 같이 우리 육계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육계 자조금 제도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조금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또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협회, 육계농가, 종계농가, 계열업체 등이 일부 상호 이익이 상충되는 부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중단되지 않았나 하고 자문해 봐야 한다.

둘째로는 자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상생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또한쪽이 이익이면 다른 한쪽이 손해라는 이분법적 제도로 이해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된다.

생산은 유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처럼 유통이 좀더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자조금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로는 국내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조금을 활용하여 해야 할 일을 망각한 연유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촉발기금 등 정부의 자금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십시일반으로 모은 우리의 자조금으로 우리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의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자조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돈산업의 경우를 알아보자.

양돈자조금은 모든 준비를 완비하고, 2004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도축장에서 등급판정 되는 모든 돼지에 두당 400원을 부과해 거출금을 징수하여 연간 약 90억원을 조성해 사용되고 있다.

사용부문은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홍보와 부위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계도 홍보(삼겹살은 부족하고, 뒷다리살과 등심 등은 남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생산자 교육,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제고 등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제도 및 정책 개발 등에 사용되어 양돈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시행후 3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들의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소비량 증대 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축산물 뿐만 아니라 원예작물까지도 자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의 농업자조금은 현재 17개의 농산물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중 13개 품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적용 품목은 계란, 우유, 유제품, 쇠고



지난 4월 26일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4번째 육계자조금 대의원총회

기, 돼지고기, 양, 꿀, 수박, 콩, 수박, 화훼 등 축산물과 원예작물에 적용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에는 두당 1달러를 부과하고, 체납시 체납액의 2%를 벌과금으로 추가 부과하고 있다. 2004년 자조금 조성금액은 약 4,600만달러였고, 주요 사용 분야는 소비홍보, 소비자 정보제공, 산업정보, 해외시장 개척, 교육연구개발, 행정비용 등에 사용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자체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평가 등을 통해 이중으로 실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자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부문 등은 우리가 곧바로 벤치마킹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돈업과 미국 육우업 등에서는 자조금 제도를 산업발전의 하나의 축으로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

# 닭고기 업계,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



다. 현재 우리 산업 상황을 느껴 본다면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조금 제도 시행이 필요한 산업이 우리 육계산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지지부진한 자조금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우리 육계산업 발전의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자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

육계산업의 생산성 향상, 수급조절, 홍보활동에 맞게 운영되도록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농가나 계열업체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운영은 절대 안된다.

자조금은 그 자체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조금운영위원회가 농가와 업체의 세대결의 장은 더더욱 아니다. 아직도 농가와 업체 관계를 주종관계나 종속관계로 보는 소수의 비양심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7년 현재의 우리 산업의 현황을 직시해

보자. 작년말부터 생계시세가 생산비 이하로 형성돼 모든 계열업체, 비계열생산농가가 10개월이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육협회 회원사들은 농가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사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과거 80년대처럼 사료비가 없어서 야반도주 했다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었다. 오히려 농가는 계획적으로 사육에 전념하면서 생계시세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과연 주종이나 종속관계였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우리 농가들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할 점은 인정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성숙되어지고,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된다.

현재처럼 장기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자조금이 필요하다. 이는 비축 등을 통해 유통 물량을 조절하고, 아울러 생산량까지도 조절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무 자조금이나, 임의 자조금이나의 용어는 중요치 않다고 본다. 우리 육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조금 제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이 다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잘못된 생각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우리에게 맞는 자조금 제도를 만들어 보자. 